



오네시모 소식지

(오네시모 선교회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6)



12/2023

목차 Table of Contents

| | |
|--|----|
| 인사말 ~~~~~ | 2 |
|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최준성 목사) ~~~~~ | 5 |
|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김석기 목사) ~~~~~ | 11 |
| Bible College Student Testmony (Hamid) ~~~~~ | 14 |
| 인터넷에서 퍼온 글 ~~~~~ | 17 |
| 재소자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글 (사이먼 심) ~~~~~ | 20 |
| 기도 제목 ~~~~~ | 22 |

인사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4,15)

Since then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Hebrews 4:14-15)

대 제사장은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세워지고, 또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 대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그것을 통해 약하고 우둔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거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The high priest's role is to offer sacrifices and gifts on behalf of the people, acting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m and God. In His wisdom, God chose an ordinary person to be a high priest, making it easier for Him to help those who are vulnerable and less knowledgeable. We hold Jesus in the highest esteem as our supreme high priest. In His capacity as high priest, Jesus came to our world, living in human form, and, as the Son of God, endured suffering with unwavering obedience, ensuring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s.

이 땅의 가족이나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염려와 사랑을 준다면 그것도 참 위로가 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While it is heartening to receive care and love from anyone on this earth, be it family or others, there is truly no greater source of joy than knowing that Jesus, the omnipotent Son of God, is interceding for us from His heavenly throne. Today, in this very moment, we should hold fast to the belief that Jesus is actively praying on our behalf.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 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라고, 더듬거리고, 말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을 만나시고 이야기하며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While we may not possess the inherent qualification to stand before God, it is through the name of Jesus that we draw near to Him. In His limitless mercy, God desires to connect with individuals as imperfect and flawed as ourselves, even when our prayers are feeble and faltering. When we can discern God's presence in our lives, our existence transcends isolation.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재소자 형제 자매와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또 그들의 가정 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많이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함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총명한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Every Friday evening, we come together to offer prayers for our imprisoned brothers and sisters and their families, lifting up their fragile spirits to God. We pray, calling out the names we know before God. Although our prayers may appear feeble, lacking, and imperfect, we find solace in the knowledge that Jesus intercedes for us, joins us in our prayers, and that God, in His boundless grace, engages in communion with us, bestowing us with abundant blessings. This time becomes an occasion of overflowing grace, thanks to the presence of Jesus, who advocates on our behalf, and a God who enriches our prayers.

주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 은혜로 매일 매일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일들을 그 분과 상의하며 앞으로의 장래 일을 준비하며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분이 주시는 참 지혜는 우리의 앞 길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I believe that you will have a blessed day, guided by God's grace. I pray that you make the most of the time given to you, seeking Jesus' presence in all your endeavors, preparing for the days ahead, and consulting with Him in all your plans. I am confident that His wisdom will always lead you down the path of goodness. We have faith that the peace and comfort our Lord bestows will always accompany ou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as our families. Thank you.



"Afterward, There Will Be Judgment"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 3:25)

"For the wrongdoer will be paid back for the wrong he has done, and there is no partiality." (Colossians 3:25)

또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날이 왔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의 날들을 하루 더 보내고 우리에게 각자 정해진 죽음을 향해 하루를 앞당겨 왔다는 의미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가졌던 동 서양의 많은 권력자들도 말년에는 모두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The transition from one day to the next reminds us that we've been given another day of life on this earth, bringing us one step closer to the inevitable end that awaits every one of us. It's a universal truth that all humans must face mortality. Even many influential figures from both the East and the West, who once wielded power, wealth, and prestige, found themselves confronting the profound reality of death in their later years.

또 우리는 삶이 고달파 하루 하루 연명하며 살아 가는 것이 죽기 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쉽게 끊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 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그만이지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 그 말씀을 믿습니까?

We also recognize that the challenges of daily life can sometimes make living seem harder than the prospect of dying. We're aware that there are those who choose to end their lives prematurely.

However, if death were the final chapter, it might be sufficient. Yet, it's an unchanging truth that after death, there is a definite judgment. As Hebrews 9:27 states,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and after that comes judgment." Do you believe in this judgment?

어떤 사상가들은 그것을 업보라고 하지요. 윤회설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 생에서 그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 중에 살아 간다면 그것은 그의 전생의 삶에서 악함을 많이 행했기에 그런 고통을 지금 이 생에서 당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귀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결코 그 어떤 예수 밖의 것으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Certain philosophers call it karma. Those who adhere to the concept of reincarnation may interpret life's difficulties as a result of past wrongdoings, viewing it as a form of retribution for their actions in previous lives. However, as faithful followers of God, we do not subscribe to these beliefs. Through Jesus Christ, we have received redemption as cherished children, and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us apart from Him.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 속에서 10개월 간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잘 준비합니다. 그 엄마의 뱃 속 양수라는 집 안에서 아기는 영양을 공급받고, 한 인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수 안에서 잘 못 준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모자라게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아마 태어나면서 죽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평생 불구나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생과 아니면 멸망의 길로 우리를 분명하게 갈라 놓게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However, there is an undeniable truth: after death, we will face God's judgment. Just as an unborn child spends ten months in its mother's womb, preparing for a lifetime of around a hundred years on this earth, our lives here are like a crucial journey that will ultimately lead us to either eternal life or a different path. We must keep this in mind.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최종 판단자 되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판단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How should we live? We believe that our way of living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standards of judgment set by God, who serves as the ultimate judge. Nevertheless,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God's standards of judgmen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ur own.

1.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 장 3 절, 로마서 2 자 11 절, 사무엘살 16:7)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우리는 누구나 남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얼굴, 재물, 지식 정도, 권세,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거금을 주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또 명예와 권세 있는 쪽에 줄을 서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1. **God looks at our hearts, not our outward appearances (James 2:3, Romans 2:11, 1 Samuel 16:7). However, we humans often judge based on looks, whether it's physical beauty, wealth, knowledge, or power. We might invest in cosmetic changes, exaggerate our qualifications on resumes, and seek positions of honor and authority. This is a common aspect of human nature.**

그러나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가진 외적인 가치가 그 만큼 이 땅에서 크고 뛰어난다해도, 그로 인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외모나,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가, 오히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으로 우리 영혼을 이미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1 장 6 절에 재물과 우리의 외모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However, all these efforts can be in vain. Even if our outward value in this world appears great and outstanding, if it doesn't align with God's standards, our looks, wealth, power, and honor can become stumbling blocks on the path to heaven. This is because they may have already captivated our souls as idols. As Proverbs 21:6 tells us, wealth and our appearance are like a passing mist.

이제까지 우리는 외모로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외모로, 걸치레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적도 많이 있습

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어 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So far, we may have often judged God's children based on their appearance, and we might have even tried to serve God with a facade, using our outward appearance. From this moment on, I desire a change. I want to serve God with all my heart and sincerity. God does not look at our outward appearance; He looks at our hearts.

2.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십니다.

(이사야 43:25) -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죄를 도말하신다 하시고 그리고 기억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구속된 줄로 믿습니다.

3. God doesn't dwell on our past but looks at the present (Isaiah 43:25). He erases our sins for His sake and chooses not to remember them. This aligns with God's righteousness. As a result,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s and redemption.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모두 죄를 저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죄를 전가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세상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God's righteousness is about transferring all our sins to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so that we don't have to bear the punishment and death we deserve. This is how the sins of this world are erased permanently.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신앙입니다, 또 그리고 미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 또 강도 중에 강도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과거는 이제 없는 줄 믿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에 많이 얽매입니다. 우리만큼 동창회니 향우회니 하는 그런 모임이 많은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지금은 이래 봐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조 판서 했는데, 내가 한국

에 있을 때는 이래 봐도 잘 나갔는데 ,,,, 이런 말들은 한국 사람 서너명만 모이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Believing in Jesus is a faith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We, who were once sinners in the past, some even as bad as the worst of criminals, have received forgiveness for our sins and have been declared righteous through Jesus. We must believe that the past is behind us and not be entangled by it. South Koreans, in particular, tend to be ensnared by their past. We may have more gatherings like alumni associations than any other nation. People often talk about which university they attended or what their ancestors did. Such conversations are common among just a few Koreans gathered together.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 과거의 죄인 된 우리 모습에 추억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현재의 생활을 가리는 것이요, 현재의 내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도, 그들의 아픈 과거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 다 해결 받았습니다.

Nonetheless,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not tethered to our pasts. We do not indulge in nostalgia for our previous lives as sinners. Living in the past only serves to obscure our present, imperfect way of life and rationalize our current, flawed faith. Consider figures like Peter, who once denied Jesus, and Paul, who persecuted and even executed believers. Their tumultuous pasts found complete resolution under the redeeming grace of the cross.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면 내 죄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과거의 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나아갈 길인 줄 믿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아픈 문제가 있어 그것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십니다. @@

If Jesus carried the sins of the whole world, He also carried my sins. Believing in Jesus Christ means having my sins forgiven. It's not about dwelling on past sins. Instead, it's about understanding that we are now redeemed saints and living accordingly. Is there anyone still troubled by past issues? Let go of them before God and aim to lead a righteous life from this point on. Our God focuses on our present life.

3.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 장 8 절로 9 절, 히브리서 11 장 6 절) 아무도 행위로 구원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남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God looks at our faith, not our deeds (Ephesians 2:8-9, Hebrews 11:6). We already know that no one can be saved by their deeds. It's not our actions but our faith in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that God sees. We can only please God through faith. Therefore, we should never judge others based on their deeds, as our own actions cannot make us perfect before God.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며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길 만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Even in this very moment, God gazes upon us with eyes like blazing fire, making judgments. Therefore, we yearn to lead lives that align with God's standards on this earth. We believe that this path alone will lead us to be called precious servants before God's judgment in the future. In the name of the Lord, I offer this prayer for you and for all of us.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날 후에 찾으리라”(전 11:1)

Cast thy bread upon the waters for thou shalt find it after many days

‘Do not clear the ladder after crossing the bridge’

미국 속담에 “다리를 건넌 후에 사다리를 치우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8년전쯤에 처음으로 장기수 재소자 구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어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4명의 장기수 재소자 형제들의 어필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 “Swap Meet”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심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퇴약별에서 스와밋을 한 후 벌은 돈은 귀한 돈이 었고 처음으로 짜장면 한그릇이 이렇게 귀한 것인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 땅에 이민와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로님 한분이 8000 스케아 되는 장소를 빌려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thrifty store 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여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장소를 thrifty store 를 하기 위하여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요. 큰 꿈에 부풀어 시청에 가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하였으나 그 장소는 그 장사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하고 세번을 찾아갔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걸으면서도 사무실에 있을때도 중얼 중얼 거리면서 묻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마음에 이 장소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하신 권사님을 만나 도움을 청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흔쾌히 저와 같이 시청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어느 젊은 분이 상담을 하더니 지금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냥 과정인가 보다 하고 써서 제출을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금방 라이선스를 내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번이나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놀랍기만 했습니다. 나오면서 권사님이 지긋이 입가에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물었지요 권사님 무슨 일인지요? 그리고는 권사님이 미소를 지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야기가 미국 속담에 다리를 건너후 다리건널때 사용했던 사다다리를 치우지 말라는 속담을 영어로 말해 주시면서 오래전에 오늘 라이선스를 내준 시청 직원이 오네시모 선교회 자리에서 소매점을 했을때 바로 저 시청 직원이 몇년간을 괴롭히면서 그 장소는 도매점을 하는 장소이지 소매점을 할수 없는 장소라는 이유로 자기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결국 그 장소에서 장사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와 논쟁하고 까다롭게 한 직원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 장소에서 자기를 쫓아 낸 그 사건을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쫓겨 가시면서 감사 카드와 함께 작은 화분의 꽃을 그 사람에게 전했다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당신과 많은 시간을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치를 치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몇년간을 이곳에서 장사를 할수있도록 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장의 카드와 진심이 담긴 작은 꽃 화분” 그것은 그 권사님에게 벌어진 일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을때 온 평안이었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은혜를 보았고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결과들입니다.

그날, 비가 내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 혹시나 사람이 강물로 떠내려갈 때 붙잡고 구원을 받으라고 식물을 담은 포대를 강물에 던지라는 그 속담 그러면 여러 날후에 찾으리라는 그 말이 경험된 날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른지 저것이 잘 될 른지 혹 둘이 다 잘될른지 알지 못함이니라“(전 11:6)

Sow your seed in the morning,

And at evening let your hands not be idle, for you do not know which will succeed, whether this or that, or whether both will do equally well.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남을 인생 속에서 갖고 얼마나 많은 조건들과 관계들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때 그것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얼마나 내 인생을 큰 축복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재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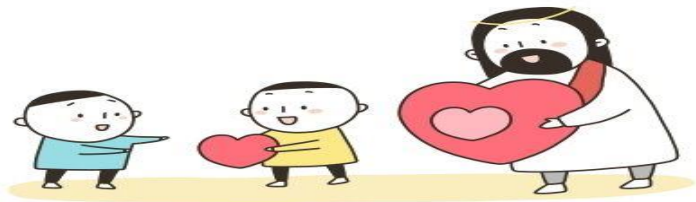
혹시, 우리는 이제 이 일은 끝났구나 너 필요 없어, 하고 건너온 사닥다리를 치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한을 알지 못하게 만사를 운행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복할 뿐입니다.

Whoever watches the wind will not plant; whoever looks at the clouds will not reap. As you do not know the path of the wind, or how the body is formed in a mother's womb, so you cannot understand the work of God, the Maker of all things.(Eccles 11;4-5)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이화라파

There is no better testimony than the testimony of our Lord Jesus Christ. If any person has a desire to truly repent and turn to the righteous way of the Lord, they must be guided and become spiritually free from the bondage of religion, darkness, ignorance, and sin. They must accept Christ first, then they will be pure.

I was born and raised in a Muslim country, raised in the Muslim faith. I thought I knew God because I was religious person, but I was spiritually dead, following man's ways. I did not understand the Spiritual Word of God or His Kingdom. I thought that if I gave to charity and prayed more and fasted, my transgressions would be covered. In my heart there was no room for the love of God.

Walking in Satan's way, I grew apart from my wife and we separated. My heart was hardend and I filed for divorce. It took more than half a year before we were able to consider getting back together, but we were finally able to work out terms of reconciliation. But then, the woman I loved, mother of my children, whom I had know since we were both children ourselves, was murdered.

At the age of 42, I was arrested for this crime that I did not commit, and was subsequently convicted and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This began a long journey of trying to prove my innocence.

Still in prison at the age 50, by the will of God, a Christian woman visited me and introduced me to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true Word of God. Because I was not ready and not prepared, every time I read the Bible, I did not understand it. This good Christian woman advised me, "At any time you want to pray, whatever you need, ask God for 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o, for the first time I did this. In all of my Muslim daily prayers and fasting, I finished by asking God to bless my case and grant my appeal-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also asked God to send someone to teach me His Word, so that I might gain spiritual understanding.

Seven months after my first visit with this faithful Christian woman, I saw a fellow prisoner, David, sitting alone reading his bible. I asked him if he had time to answer some of my questions. He said that he could only give me an explanation, but only the Holy Spirit could gave me understanding. He explained that it was in the authority of God, and when I was prepared, God would see this and give me understanding of His Words. I had to seek and than I would find God's truth.

For three weeks I visited David everyday. All day long I asked him about the Word of God, and about Jesus and about God. He took the time to explain, showing me verse by verse in the Bible. I then asked him to teach me the Gospel. He answered, "I can only give you an explanation. If you walk in His righteous way, God will teach you His Spiritual Words." Then we stated in the Gospel of Matthew and went verse by verse. I trusted the Word of God and we completed Matthew after three months. David answered all of my questions with the Bible and showed me the right words. During this period, I truly repented. I remember one day that I was crying hard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ears came from my eyes like rain from a spring cloud. I asked God to accept my repentance and in the name of Jesus to forgive me for all the years that I had been far from Him and was a sinner.

The morning after we completed the Gospel of Matthew, I was in my cell praying. Suddenly I was in a vision. I saw Christ Jesus in Spirit, a white garment covering His body. He did not speak, He only let His presence warm me and fill me with absolute peace. When I returned from the vision, I was back in my cell. From that day forward, by God's will, I understood the Spiritual meaning of His Words. The Lord Jesus Christ healed me.

David and I began reading the Gospel of Mark and continued on to the end of the Bible. I do not remember when I stopped praying in the Muslim way. I no longer fasted in the Muslim way, nor did I read the Quran. Now, by the Grace of God, I have truly repented and become a new person in the Christ Jesus. I have been reborn in the Spirit.

Fourteen months later, on August 20,2006, I was baptized by pastor John in prison. Muslim prisoners were aware of my Christian baptism. That night, one of them dropped a letter in my cell that threatened me with death. The next day, I added two hours more to my Bible study with brother David out on the yard, intentionally making myself available for any Muslims that might want to see me. But none of them approached me. God's Word was fulfilled. "Have not I commanded thee?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be not afraid, neither be thou dismayed: for the LORD thy God is with thee whithersoever thou goest." Joshua 1:9

One day I was with brother David reading the book of Revelation, and a Voice spoke into my right ear, but nobody was standing beside me. The Voice said to me, "Read John 14:15-18 and you will find the answer." The question in my mind was about a Holy dream that occurred seven months before. In my dream, in the mirror, instead of my own reflection, it was the face of Joseph, son of Jacob. I wondered how it was that I recognized Joseph. John 14:15-18: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And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sha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 ev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 not dwelleth with you, and shall be in you.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I will come to you.”

Now I understood that the Holy Spirit gave me recognition of the face of Joseph in the mirror. It brought tears of joy to know the Holy Spirit dwells in my heart and in my mind. To know God calls me one of his sons through Christ Jesus.

For one and half years, I studied every day with brother David and Christ Jesus. Together we completed the Old and New testments.

In 2007, I began sharing the Word of God with other prisoners. We are now a small group of spiritual Christians who meet regularly for fellowship and study.

In March 2009, I was led by the Holy Spirit to translate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into the Farsi language. I began with the New testament, which I finished two years later. I March 2011, I started working on the Old testament, the five books of Moses, and I completed them in November of that same year.

2017 marks my twentieth year in prison. I have faith in the Word of God. I am certain that just as the Lord Jesus Christ saved my spirit by the will of our Father God, He will also take care of my body in prison and bring justice to my case in His time. I asked God to use me by His will and to give me the honor of serving Him. In the name of His Son, I pray He help me to grow in the Spirit of the Lord. I also asked God to lead me by the Spirit to guide those who are in darkness and bring them to the light of the truth through Jesus Christ.

My passion is to share God’s Word with those who are hungry and thirsty for the Kingdom of God. I will always share how beautiful and powerful His Kingdom is. Just I am saved in Christ’s name, I pray everyone will be saved, in Jesus’s name.

I thank God that after sharing His Word with my sisters, who like myself were Muslim, two of them have accepted Jesus as their Lord and Savior.

I continue to share God’s Word with my fellow prisoners and the guards who work here. I hope that one day all people will accept the Lord Christ Jesus into their heart and be saved.

May God bless you all and keep you safe in His loving car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Truly yours in Christ Jesus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은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말 같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하여 새로운 생명이라는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맺을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성인이 되어 호기롭게 첫발을 내디딘 사회는 생각보다 너무 어둡고 차가워서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에게 항상 따뜻한 엄마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 다치게 하고 슬프게 해도 다 받아줄 것만 같아서 “사랑해요”라는 표현보다는 짜증을 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간호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은 산부인과 간호사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 성인이 되는 세월을 간호사로서 후회 없이 보내왔지만,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 생명이 생겨나고 자라나 마침내 탄생하게 되는 전반적인 과정과 한 여성의 고유한 삶의 과정에 내가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벽차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 벽찬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탄생과 죽음을 모두 직접 마주해야 하는 힘든 일도 많았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던 나는, 20년 세월 동안 딱 한 번 나의 직업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다.

하루는 환자들의 약물을 확인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귀가 아플 정도의 목소리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들려왔다. 그 순간 병동에 있던 모든 산모와 환자들, 간호사들이 얼어붙었고, 나는 급히 그 소리가 나오고 있는 병실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한 나는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바닥에는 식판과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고, 한 후배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에게 멱살을 잡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사고가 일시 정지되어 있다가, 이대로 두어서는 후배 혹은 다른 환자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보호자를 말리기 시작했다. 다른 환자분들이 다치실 수도 있다며

진정하고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하자 그는 천천히 후배의 먹살을 놓았다. 나는 후배에게 나가서 잠시 쉬고 있으라 일러주고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어 드렸다. 자신의 딸이 밥을 먹는 도중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바꿔 달라고 하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바꿔주지 않아 딸이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날은 갑작스레 산모들과 환자들이 많이 입원한 날이라 종일 정신없이 일했던 날이었다.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바쁜 탓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일했을 후배가 생각나 가슴이 무언가에 걸려 막힌 듯이 먹먹해져 왔다.

우선 보호자에게는 대신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 후 곧바로 음식을 바꿔 드렸다. 그 후 급히 후배를 찾아가 보니, 뒤켠에 몰래 숨어서 울고 있던 후배는 내가 다가가자 눈물을 그치려고 최선을 다하며 나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다. 괜찮다며 30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어 그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후배를 보고 나는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리곤 다시 조심스레 그 환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다행히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고 안정되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숨이 막혀왔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던 후배 간호사가 대견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드라마에서만 벌어질 듯한 이야기가 실제 내 주변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두렵고 괴롭기도 했다. 누군가의 귀한 딸로 태어나 항상 사랑받아 마땅해야 할 이 아이가, 자기보단 남을 위해 희생하며 한 생명을 살리면서도 다른 누군가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자녀로부터 치욕스러운 모욕을 묵묵히 들어야만 하는 현실이, 몰래 혼자 눈물을 훔치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

삶은 탄생('B'irth)과 죽음('D'eath)이고 그 사이에 선택('C'hoice)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매일 여러 번의 선택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주체로서, 결과가 좋은 나쁜든 책임을 지게 된다. 3년 전 그 일은 나에게 '선택'의 책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다. 추운 겨울, 오전 근무를 위해 새벽에 준비를 마친 후 딸들이 자고 있는 방에 조용히 들어가 불에 뽀뽀를 하고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중학생인 큰 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 사랑해요.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말을 해주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면서도, 항상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꼭 껴안고 “엄마도 사랑해”라는 말을 전한 뒤 집을 나섰다. 그리곤 병원까지 걸어가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나 엄마께 전화를 드렸다. 이른 시간임에도 거의 바로 전화를 받으신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사뭇 달라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여쭙자, 감기에 걸렸다고 하셨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에 혼자서 생활하시는 엄마를 평소에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울컥해서, 아프시면 참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하라며 오히려 괜한 짜증을 냈다. 그러고는 병원에 들어가 봐야 한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가슴 한 켠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평소처럼 환자와 산모에게 필요한 소독을 하던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 딱 봐도 중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배가 아프다며 찾아왔다. 병동의 모든 이목은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시선 탓인지 아이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무섭고 두려워 보였다. 하던 일을 마치고 동료 간호사의 부름에 아이의 초음파 결과지와 입원 사유를 보게 된 나는 당황하여 말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뱃속에는 한 생명체가 살아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아이는 미혼모로, 조기진통으로 인해 배가 아픈 것이었고,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며칠 후 응급으로 분만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아이와 태중의 아기 모두 건강했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로, 여자아이는 병실로 가게 되었다. 그 후 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지나간 다음 날, 갑자기 후배 간호사가 달려오며 다급한 목소리로 “어제 응급으로 분만한 환자 없어졌어요!”라고 소리치자 나는 머릿속이 새하얗졌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른 과에 전화를 돌리며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병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순간 다리 힘이 풀린 나는 비상계단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의 큰딸과 비슷한 나이의 그 여리고 작았던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태어난 아기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내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온통 뒤덮어 놓았다. 결국 태어난 아기는 보육 시설로 보내졌고, 나는 며칠 동안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을 수 없었으며,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 이 사회의 눈초리가 미웠다.

그렇게 며칠을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하다 보니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났고, 지난번 엄마에게 짜증을 냈던 일로 미안한 마음에 약간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일에 치여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껏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한 딸의 전화를 엄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셨다. 밥은 먹었냐며 내 안부를 먼저 생각하시는 말씀에 나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못 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런 딸의 전화를 묵묵히 받아 주시던 엄마께 언제 해본 지도 기억에 없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전했을 때, 약간의 침묵 뒤 “엄마도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항상 고맙고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던 떨리는 엄마의 음성은 여전히 내 가슴 속 깊이 남아 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

재소자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글

사이먼 심

한국으로 추방당하여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이먼 심 형제가 재소자들에게 부탁하는 글을 보내셔서 함께 공유합니다.
(참고로 본 글은 작성자가 보내온 글 그대로 올려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inmate brother 들에게 한 말씀 올리자면 Life without parole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5-10년 이내에 나갈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Prison Politics 를 머릿속에서 버리는 걸 강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사회에 그런 생각으로 나오면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도태될 뿐입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Homie, Homie 외치면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적응도 못하다가 결국엔 감옥을 전전하는 삶을 살더군요. 물론 저도 같이 어울리지 않고요.

Prison Politics 라고 감옥안에서 법이 있잖아요? 평생 감옥에서 있을 거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5년 이내로 조만간

나갈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치노로 올 준비하시고 hard 19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용접학교라도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사정 매우 안 좋습니다. 시간만 허비하다가 오면 밥 굶어 죽을 겁니다.

운동은 몸 커지는 운동(감옥 특성상 보여지는 근육)보단 근지구력 위주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국와서 뭘 하든 답이 없습니다.

용접 쪽으로 들어와도 전망이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대신 경남권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고 경기권과 충청권의 전망이 다소 괜찮은 편입니다. 용접은 웬만하면 알곤용접(TIG)까지 배워오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조선소도 사람을 엄청 구하지만 안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페이가 매우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떠나는 실정입니다. 조선소는 기본페이를 올리지 않는다면 실정이 앞으로도 비슷 할 거예요. 오히려 잠수가 조선소보다도 노동이 덜 하니까요.

치노에 있을때 어정쩡하게 시간이나 허비하지 말고 잠수학교 졸업하고 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재 한국경제 안 좋습니다만 잠수쪽으론 매우 밝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웃돈을 엮고 데려오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술직들은 작업이 없어서 다 노는 상황이구요.

(사이먼 형제가 보내준 사진 첨부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로 동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 한마디는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오네시모 선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2. 재소자 방문을 위한 교도소 방문의 먼길 운전이 항상 안전하도록,
3. 갇힌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되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4.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진정한 오네시모로 변화 되기를,
5. Korean Community 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6. 섬기는 몸된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7.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8. New Life Ministry (재소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역자로 변화되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사역)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확장되기를,
9. 한국의 추방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10. 오네시모 선교회 새 비전 “예방 사역”을 위하여
11. 선교회 사역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들을 위해,
12. 오네시모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이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적 평강과 건강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성경과 신앙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가족 관계에 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선교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0 시 30 분)

(재소자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회: 금요일 저녁 5 시 30 분)



Onesimus Ministry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9100

Email: onesimusministry94@gmail.com

www.onesimusministry.org

Est. 1994

Onesimus New Life Ministry: Korea, Japan, Mexico, Colombia

International Humanitarian Exchange Council, CA USA.

Rev. Suk Ki Kim Founder

Rev. John S. Choi President